New Territories, Rambler Channel, Tsing Yi, 2009

Andreas Müller-Pohle
안드레아스 뮬러 폴레

글 권지현Kwan, Ji-Hyun 독일특파원

안드레아스 뮬러 폴레(Andreas Müller-Pohle)는 European Photography magazine의 편집장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지난 34년 동안 European Photography라는 잡지를 유럽에서 가장 정평 있는 예술사진 전문잡지로 일구어 내는 한편, 자신의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해 왔다. 최근 Hong Kong Waters《水光浮城》라는 사진집을 출판했고 내년 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사진을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곧 한국을 방문할 그를 만나 편집장으로서, 그리고 사진가로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드레아스 뮬러 폴레 Andreas Müller-Pohle

Andreas Müller-Pohle is a Berlin-based media artist and publisher. He studied at the Universities of Hanover and Göttingen, and in 1979 founded European Photography, an independent art magazine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new media. His first artistic projects from the late 1970s focused on issues of photographic perception, and later on photo recycling, now also incorporating video.

In his most recent works, he addresses the subject of water in portraits of the Danube River and Hong Kong. Müller-Pohle's works have been widely published and exhibited and are included in private and museum collections worldwide. As a publisher, Müller-Pohle has edited the major works of the media philosopher Vilém Flusser, available today in the 10-volume Edition Flusser and including the seminal Philosophy of Photography,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over 20 languages.

In 2001,Müller-Pohle was awarded the European Photography Prize from the Reind M De Vries Foundation.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texts on photo theory and has been a visiting professor and lecturer at the Higher Institute of Fine Arts in Antwerp,Belgiu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muellerpohle.net

Kowloon, Tsim Sha Tsui, 2009

EU

Q. 무엇을 공부했고 어떻게 사진가가 되셨어요?

A. Andreas Müller-Pohle (이하 A): 저는 원래 경제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친구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진가였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진을 접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사진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학교 공부에 쏟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진관련 서적을 읽고 암실 작업을 하는데 보냈습니다. 1979년 대학을 졸업하던 때에 이미 제가 예술가가 되어 사진 관련 일을 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친했던 두 명의 친구와 함께 European Photography를 창간하게 되었고 저는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해 오신 작업의 주제와 방식이 참 다양한데 주로 작업의 모티브를 어디서 얻고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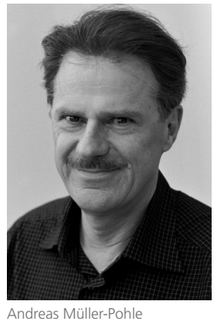
A. 제 작업은 다양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작업의 원천은 항상 호기심에 있어요.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는 곧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나섭니다. 사진으로 작업을 하지만 반드시 사진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고 비디오, 설치 작업도 사진작업 만큼 좋아합니다.

Q. 왜 Water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최근 Hong Kong Waters 라는 신작을 발표하시고 사진집을 출판하셨는데 이전 작품도 강에 관한 것이었어요. Danube River Project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A. 물에 관심이 간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예술적인 관심, 그리고 정치적, 생태학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물의 시각으로 지상과 물 속이 동시에 보이는, 분할된 화면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anube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Danube강은 유럽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Water사진을 찍을 때 단지 사진적 관점에서 작업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연구를 병행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었던 장소 중에 25군데의 물을 채집하여 독일의 연구소에 보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알고 싶었고 그 결과들을 사진과 병행하여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적 접근이었다기보다 좀 더 다방면에 걸친 멀티미디어적인 접근이었어요.

Q. Danube River Project 와 새 작업인 Hong Kong Waters 프로젝트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A. Danube 프로젝트는 강의 초상사진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Hong Kong Waters시리즈는 도시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Danube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강을 따라 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2860㎞가 되는 강의 근원부터 하류까지 전부 말입니다. 강의 지표가 되는 지점들을 선을 그리듯 따라가며 한번씩만 촬영을 했어요. Hong Kong Waters 작업의 경우에는 선을 그리듯이 따라가며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했습니다.


Andreas Müller-Pohle

Q. 왜 특별히 홍콩에 관심을 두셨어요? 새 작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A. 2004년에 처음 홍콩을 방문했는데, 방문하자마자 그 도시와 사랑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홍콩에 가게 될 일들이 생기면서

홍콩은 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30㎞나 되는 해안가가 있고, 섬만 해도 260개가 넘어요. 그리고 항구가 발달해 있습니다. 강과 운하, 정글과 폭포, 그리고 작은 만과 시내, 개울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홍콩에 있는 여러 종류의 Water 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배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땅에서 촬영하기도 했지요. 2008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자료조사와 테스트, 그리고 후작업까지 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Hong Kong Waters 사진과 함께 3-channel audio 설치 작업이 병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홍콩의 물에서 직접 녹음한 사운드를 일본의 음향 아티스트인 Shingo Inao 작가와 함께 협업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oasting' 이라는 비디오 작업도 Hong Kong Waters 작업의 일부분 입니다.

Q. 최근 Hong Kong Waters 작업으로 사진집을 출판하셨지요, 이 사진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A. 작업을 완성하고 나서도 사진집을 출판하는데 또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진집은 독일의 Kehrer 출판사와 홍콩의 Asia One Book 출판사가 함께 공동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아웃과 디자인, 프린팅, 바인딩은 저의 감독 아래에서 독일에서 이루어졌어요. 두 출판사와 함께 일했던 전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사진집 출판을 위한 경비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바로 두 출판사들이 미리 잠재적인 출판 시장을 겨냥해서 책을 선구매 해준 덕분이지요. 사진집에는 총 63장의 사진이 딥틱 형식으로 병렬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Oscar Ho 가 서문을 써주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ebook 의 형식으로도 사진집이 출간될 계획에 있습니다.

Q. European Photography의 편집장이기도 하신데요, 잡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A. 저는 1979년에 European Photography 를 설립하고 1980년 1월에 첫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곧 70년대 후반의 유럽의 새로운 예술사진의 경향과 사조를 반영하는 포럼을 여는 예술 전문 잡지로 인식되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사진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식이라고 불릴 만한 잡지도 사진 포럼도 많지 않던 시기였죠. 그래서 잡지의 이름을 European Photography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European Photography 라는 의미가 반드시 유럽 사진가의 유럽 사진만 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남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싣고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한 비평과 사설, 그리고 현대 사진의 경향에 대한 기사를 적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술 이론과 사조, 그리고 개념주의, 다큐멘터리 등 광범위한 분야의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Q. 잡지사의 편집장이자 사진작가라는 것이 참 독특하게 다가오는데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경험하신 것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A. 저에게는, 사진작가와 편집장의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얽혀있고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지요. 일의 기본적인 과정은 같아요. 많은 양의 사진 작품들을 특정한 주제와 분류 하에 놓고 셀렉트를 합니다. 또는 사진의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진가와 편집장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즐기고 있습니다. 제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잡지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것 모두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일들이고 제게 활력을 주는 일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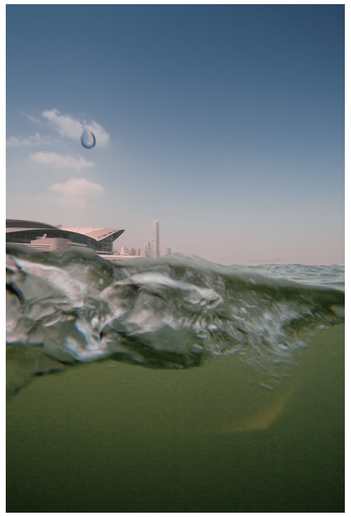
Q. 홍콩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고, 일본에서 작업을 하시기도 했지요. 다음 학기에는 중앙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사진을 가르치게 되셨는데,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A. 일본은 1996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구요, 그리고 베트남, 타이,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여러 번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의 시각에서 볼 때에 아시아는 유럽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정신적인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문화는 세상을 분석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직선적이고, 알파벳순으로 정렬되며, 분석/분류가 주를 이루지요. 반면에 동양의 문화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선적이기보다 타원형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요. 저처럼 두 대륙을 자주 다녀오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자 발견입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아시아를 참 좋아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한국의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기대가 크고 설렙니다.

New Territories, Shing Mun Valley, Tsuen Wan, 2009

Hong Kong Island, Stanley, 2009

New Territories, Lantau Island, 2009


Hong Kong Island, from a boat near Causeway Bay, 2010

Q. 아라키 노부요시와도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A. 제가 처음으로 도쿄를 방문하던 때에 아라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다음날 시부야의 한 러브호텔에서 촬영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저는 바로 그 촬영을 도큐멘트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촬영 전 과정을 비디오로 담아내었습니다. 아라키는 친절하고 유머감각이 있으며 일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후인 2011년에 그 비디오를 베를린의 Photo-Edition-Berlin Gallery 를 통해 공개하게 되었고 99+IX 에디션으로 비디오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이제 막 Hong Kong Waters 사진집을 출판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새 작업을 구상 중에 있지만 아직 리서치를 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한국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학생들을 만나고 사진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기대되는 바가 많아서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ww.equivalence.com | www.riverproject.net | www.muellerpohle.net